

장영석

“주전 바늘구멍 뚫는다”

최원준

KIA, 키움과 트레이드로 영입
아내 고향 광주, 이적 전부터 익숙
3루수 낙점...강한 어깨·장타력 잠재
“타점·진루타 중점...존재감 보일 것”

광주의 장서방이 편다.
KIA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던 자리는 3루였다. 지난 시즌 박찬호가 낯선 3루에서 역할을 해줬지만 올 시즌은 원래 자리인 유격수로 이동해, 2루로 간 김선빈과 최상의 키스톤 콤비를 구성했다.
틈직하게 자리를 지켜주던 이범호도 은퇴를 하면서 고민이 된 3루. KIA는 트레이드를 통해 장영석으로 그 빈틈을 채웠다. 확실한 자리가 필요했던 장영석에게도 최상의 트레이드였다. 여기에 광주는 장영석에게 익숙한 곳이다.
광주는 아내의 고향이다. 아내가 임신하고 친정에 머물면서 장영석은 트레이드 전부터 광주를 오가며 지냈었다. 아무래도 트레이드 소식을 가장 반긴 이는 장모님이였다.
장영석은 “장모님이 가까워져서 좋아하셨다”며 “광주 생활이 너무 좋다. 음식도 맛있고 교통편도 좋다”고 웃었다.
새 인방이 된 챔피언스필드도 편하고, 좋은 기억도 있다.
장영석은 “캠프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 분위기가 정말 좋다”며 “야구장 그라운드도 좋고, 잔디도 좋고 다른 팀 선수들도 좋아하는 야구장이다. 작년에 챔피언스필드에서 (하)준영이에게 동점 스리런을 때린 기억이 있다”고 웃었다.
장영석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지난해 4월 5일, 하준영을 상대로 챔피언스필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포를 쏘아 올린 적이 있다. 1-4의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리는 짜릿한 동점 홈런이였다.
경기는 KIA의 6-4 승리로 끝났지만 장영석은 무실점 행진을 달리던 하준영에게 시즌 첫 실점과 블론세이브를 안겨줬었다.
타이거즈의 새로운 3루수로 시즌을 기다리는 그는 ‘수비’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
장영석은 “컨디션은 좋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비다. 감독님께서 수비에 신경 쓰신다”며 “송구할 때 실수를 줄이려고 한다.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으니까 던지는 것만은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3루수로 사람들에게 강한 어깨,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타석에서는 타점과 진루타에 중점을 둘 생각이 다.
장영석은 “타율을 안정화하려고 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다”며 “가장 타점에 신경 쓰고 주루상 진루할 수 있는 타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즐거겠다’는 마음으로 그라운드에 오를 생각이 다.
장영석은 “선수들 부담감 줄이라고 감독님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다. 매 경기 즐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아직 풀타임을 해본 적이 없다. 올해 풀타임 너무 뛰고 싶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팬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기다려주시 만큼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팀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외야 중원이 2020시즌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나홀간의 휴가”로 호흡을 고른 KIA가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을 갖고 엔트리 경쟁을 이어간다.
앞선 세 차례의 흥백전을 통해 시선이 쏠리는 격전지가 생겼다. 스프링캠프 내내 최원준이 자리를 지켰던 중견수 자리다.
최원준은 윌리엄스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중견수로 변신해 시즌을 준비해왔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 그리고 타격 잠재력이 최원준의 장점.
확실한 자리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한 최원준은 캠프 연습경기에서 28타수 10안타, 타율 0.357의 좋은 성적을 냈다. 빠른 발을 활용해 가장 많은 6개의 2루타를 기록했고, 3개의 도루도 성공시켰다.
성공적인 캠프를 보내고 온 최원준은 “중견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2라운드 전쟁에 돌입한다.
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김호령이 흥백전 첫 경기에서 홈런포를 작렬하며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수비 실력도 여전했다. “역시 김호령”을 외치게 하는 수비로 외야 중원 싸움에 불을 붙였다.
최원준은 김호령을 ‘경쟁자’이기 전에 배워야 할 선배로 이야기한다.
최원준은 “호령이 형이 중견수도 오래 했고 배울 점도 많이 있어서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며 “당연히 내가 경기 나가는 게 좋은 일이고, 호령이 형도 중견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조금 더 컨디션이 좋고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게 맞다.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원준이 더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타격이다. 최원준은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쳤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다.
최원준은 “톡톡 맞히기 보다는 내 스윙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잘하던 방향으로 해야 했는데,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칭찬도 많이 들으면서 내 것이 생긴 것 같다”며 “생각하는 방향으로 스윙 같은 것이 잘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타격도 타격이지만 ‘중견수’라는 확실한 이름을 위해서 안정감 있는 수비도 중요하다. 익숙한 곳을 누비면서 어색함도 사라졌다.
최원준은 “미국은 처음 가본 경기장이었다. 중견수를 해서 불편한 것인지, 경기장이 불편한 것인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며 “중견수도 여기서 해봤고, 챔피언스필드 익숙한 곳에 오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31일 재개되는 흥백전을 통해 다시 어떤 무대를 갖는 최원준은 “항상 프로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게 144경기다 나가는 것이다. 또치고 이런 것보다 득점할 때 짜릿해서 많은 득점하는 게 좋다”며 “144경기”와 ‘득점’에 초점을 맞춰 2020시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외야 중원 격전지 부상
빠른 발·강건·타격 잠재력 ‘눈도장’
캠프 연습경기서 타율 0.357 두각
“풀타임 출전·득점 두 토끼 잡겠다”



존재감 갑 임성재

PGA, 가상 매치플레이 대회 진행...왓슨·스콧 등 제치고 4위

임성재(22·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가상으로 진행한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쟁쟁한 세계적인 톱 랭커들을 줄줄이 따돌리고 4위를 차지했다.
PGA 투어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중단됐다.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는 등 빨라야 5월 21일 개막하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부터 시즌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자 PGA 투어는 최근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대회를 가상으로 진행해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로 했다.
원래 대회 포맷 그대로 64명의 선수를 추려 한 조에 4명씩 조별 리그를 벌이게 한 뒤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골프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는 전문가 10명의 투표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임성재는 조별 리그에서 저스틴 로즈, 맷 윌리스(이상 잉글랜드), 버바 왓슨(미국)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임성재는 로즈, 왓슨 등 메이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전문가 투표 8-2 완승을 거두고,

윌리스는 아예 10-0으로 완파했다.
16강에서 지난 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놓고 경쟁한 콜린 모리카와(미국)를 만난 임성재는 5-5로 승부를 내지 못했으나 연장전 승리의 팬 투표에서 56%-44%로 승리해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상대 애덤 스콧(호주)과 만난 임성재는 전문가들로부터 6-4 판정승을 거둬 4강까지 승승장구했다.
스콧은 16강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9-1로 대파하고 8강에 올라온 상황이었다.
30일(한국시간)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4강 결과는 임성재의 패배였다.
임성재는 4강에서 온 람(스페인)에게 4-7로 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4위전에서는 젠더 쇼플리(미국)를 만나 2-8로 패했다.
이 대회 결승에서는 람이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6-5로 꺾고 우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물론 이 결과는 실제 골프 경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만 결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2019-2020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는 임성재를 바라보는 PGA 투어 전



문가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성재의 4위는 기분 좋은 결과다.
임성재는 3월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일궈냈고, 이어 열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PGA 투어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
/연합뉴스

우즈 vs 미켈슨 다시 보나

3년간 해마다 개최 약속 지난해 무산...미켈슨 “재대결 추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탓에 세계 프로골프투어가 모조리 중단된 가운데 골프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의 1대 1 맞대결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소식이 다.
둘은 지난 2018년 1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릭 골프 코스에서 1대 1 매치플레이 대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켈슨은 연장 네 번째 홀까지 간 접전 끝에 삼금 900만 달러를 독차지했다.
이 ‘세기의 대결’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작년에는 불발됐고, 올해도 성사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미켈슨이 트위터에서 재대결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켈슨은 트위터를 통해 우즈와 맞대결 이벤트를 치를 의향을 묻는 팬의 질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짧막하게 답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이 “변칙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 진짜다”라는 답을 바로 올렸다.
둘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은 코로나19 탓에 웬만한 스포츠 경기 중계가 멈춘 방송사에는 호재다.
100명이 넘는 선수에 수많은 갤러리가 모이는 투어 대회가 아니라 단 2명의 선수가 갤러리 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결 때도 관객은 입장시키지 않았고,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채널을 통해 중계방송을 했다.
/연합뉴스